

단풍들이 도심 한복판까지 고아하게 밀려든 가을에 걸맞는 불교소설과 시집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와 불교문학계를 달구고 있다.

《미륵》(발간 권·전3권) 《출가》(우리출판사 권) 《흰소가 끄는 수레》(창작과 비평사 권) 《매달려 가지 마라》(한림원 권·전2권) 《종이인형의 사랑》(선녀와 나뭇꾼 권) 《푸른코끼리》(북호 권·전3권) 등 여섯권의 소설과 《그리운 여우》(창작과 비평사 권) 《꽃잎이 지는 길목에서》(천우 권) 《들꽃의 그리움 가슴에 담고》(빛남 권) 《다시 나를 바라보다》(홍법원 권) 《돌아보면 그가 있다》(창작과 비평사 권) 등 다섯권의 시집이 바로 그것이다. 불교의 원유에 사상을 구도자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들 작품들은 독자들과 불교문학에 대한 갈증해

소에 단단히 한몫하고 있다. 박범신씨의 《흰소가 끄는 수레》와 백금남씨의 《출가》는 다섯권의 소설들이 각각의 인연고리로 연결

된 연작소설이다. 1993년 절필선언을 했던 박범신씨가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되찾으려는 고뇌를 담아 4년만에 발표한 《흰소...》는 《흰소가

모태로 해 불교색이 짙게 드러난다. 출가에서 화두까지 불교적 수행이란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고민한 《출가》는 《출가》 '죽비' '염주'

젊은 구도자 정각의 수행역정과 그를 향한 한 여인의 억겁의 사랑으로 우주의 창민 진리를 깨닫게 하는 소설이다. 《매달려 가지 마라》는 저자인 윤두병씨가 구도자로서 겪었던 고뇌와 열정을 소설이라는 형식을 빌려 표현한 신화소설로 주인공 윤석규 외의 인물들은 실명 그대로 사용돼 절절한 감동을 준다.

불교문학 가을수확

시·소설등 10여권 '독자 눈길잡기'

박범신·백금남씨 연작소설 발표

'미륵' '종이인형의...' 등 작품성 돋보여

《'연비' '화두'의 다섯권으로 나누어 각각의 주인공이 이야기를 전개해 진정한 출가 수행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특징인 백금남씨의 신작이다. 수행자들의 치열한 구도행각을 담은 구도소설 《미륵》과 《매달려 가지 마라》는 현실 사회 속에서의 불교적 구도행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미륵》은 《소설 반야심경》(업보) 등을 발표하면서 우리시대의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인간·인간의 근원적 문제를 다룬 해법스님의 작품이다. 미륵을 꿈꾸는

《'연비' '화두'의 다섯권으로 나누어 각각의 주인공이 이야기를 전개해 진정한 출가 수행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특징인 백금남씨의 신작이다. 수행자들의 치열한 구도행각을 담은 구도소설 《미륵》과 《매달려 가지 마라》는 현실 사회 속에서의 불교적 구도행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미륵》은 《소설 반야심경》(업보) 등을 발표하면서 우리시대의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인간·인간의 근원적 문제를 다룬 해법스님의 작품이다. 미륵을 꿈꾸는

김지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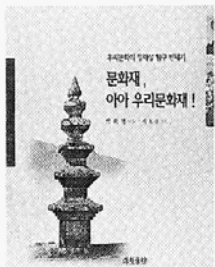


▷ 최근 발간된 불교소설과 시집들.

문화재의 생명력 '시어로'

박희진씨 '문화재, 아아 우리문화재' 펴내

완벽한 아름다움의 예술품 앞에서 보통 사람들은 감동에 빠져 말을 잃고 만다. 그러나 시인은 넘치는 환희속에서 감성을 아우르고 단어를 선택해 '자브름하게 감으신 눈을



한층 시 읽는 맛을 생생하게 해 준다. 지난 40여년동안 '우리문화의 정체성 탐구'를 평생 화두로 삼은 박희진은 이 시집에서 단순한 선인들이 남긴 유물 유적으로서의 문화재 보기를 뛰어넘어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로 꿰뚫는 인식의 지평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최근 몇년동안 전국 각지의 사찰을 순례하며 깨달음을 향한 구도심으로 사찰시 쓰기에 몰두해 온 박희진시인은 내년 2백여 편의 사찰시를 묶어 《백사백경(百寺百景)》이란 이름의 시집을 펴 낼 예정이다.

이경숙 기자



▷ 살풀이 춤을 추는 법우스님.

법우스님 승무 '시뽀시뽀'

11월5일 대전 우송회관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이수자인 법우스님(대전 현불사 주지)이 11월 5일 저녁 7시 대전 우송회관에서 첫 전통춤 발표회를 갖는다.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와 제97호 '살풀이춤' 기능보유자 이매방선생에게 승무와 살풀이춤 등 전통춤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기능보유자 송암스님에게 법배, 법고무, 바라, 작법무 등을 사사한 스님은 스님으로는 유일하게 '승무' 이수자로 지정됐으며 현재 영산재보존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법우스님이 승무와 살풀이춤, 스님의 무용계 선배와 도반들이 동참해 허튼춤 선비춤 태평무 등을 선보인다. (042)271-3395

한·중·일 민족음악 발표

박범훈교수 '동점' 공연

최근 '오케스트라 아시아'의 상임지휘자로 취임한 박범훈교수(중앙대·국립국악관현악단장)가 30·31일 양일간 저녁 7시 30분

일분음악집단, 중국 중앙민족악단과 함께 '2000년을 여는 아시아의 소리' 합동공연을 갖는다. 이번 공연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1부는 백대용씨(중앙대교수)의 교향시곡 '천안삼거리', 일본 미키미노리씨(일본음악집단 예술감독)의 '비파협주곡', 중국 유금문씨(중국중앙민족악단 예술감독)의 '모리화'가 연주된다. 2부는 이견용씨(한국종합예술학교 음악원 교수)의 '달맞이', 당전평씨(중국음악대학 작곡과 부교수)의 '후사', 박범훈교수의 '동점'이 각각 연주된다. '동점'은 불교가 인도로 부

터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유입된 경로인 실크로드를 연상해 표현한 작품이다.

중국 원로화가 초대전 29일 한국일보 갤러리

한중수교 5주년을 맞아 중국을 대표하는 원로화가 연한, 야오유위,

문화소식

광청, 위원저우 등 4인 초대전이 29일까지 한국일보사 갤러리(02-724-2320)에서 열린다. 40여점이 전시되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특히 광청의 '포대화상' '미륵' '면벽도' 등 카툰적 화법의 그림이 눈길을 끈다.

전남의 불화 '불 기회' 옥과미술관, 11월22일까지

전남의 전통문화유산의 발굴과 선양에 힘쓰고 있는 곡성 옥과미술관(관장 성준경)이 개관1주년을 기념해 '전남의 불화전'을 개최, 전남 곳곳의 사찰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후기의 우수한 불화들을 일반에게 선보이고 있다.

11월22일까지 제2전시실에서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보물 제1044호로 지정된 순천 선암사 대각사사건영을 비롯 전남의 유형문화재인 진영 흥국사 관음보살도(제187호), 해남 대흥사 삼일면천수천안관음보살도와 준제관음보살도(제179호), 영암 도갑사 도선국사진영(제176호) 등 23점의 불화가 전시된다.

불심시심 <10>

강의 어구에 정자 하나

何處名區勝 (하처명구승)	어느 곳이 명승지 뛰어난 구역인가
雙江合一亭 (쌍강합일정)	두 줄기 강물 한 정자로 모이네
紫雲雲鳳瀾 (자운운봉란)	붉은 언덕 구름은 촉촉하고
碧梧風冷冷 (비梧桐冷冷)	푸른 회나무 바람만 쌀쌀
滄父垂竿立 (황부추竿立)	낚시대 드리우고 서있는 어부
牧笛吹笛停 (목동취적정)	목동은 불던 피리 멈추네
遊人遺跡下 (유인환석하)	지나던 나그네 지팡이 날려서
十里路沙汀 (십리담사정)	십리의 모래사장 밝아 거니네

용암(龍巖)대사가 '합강정의 운에 따라(合江亭韻)' 지은 시이다. 두 강이 흐르다 만나는 곳에 서 있는 정자에기에 합강정이라 하였을 것이다. 명승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나의 즐거움에 맞아 감상하기에 족하면 그것이 바로 명승지이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좋다 하더라도 나에게 맞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대사는 여기에 이르지만, 어디가 명승지였는가 하면서 곧바로 두 물이 합쳐진 이곳이 명승지라고 대뜸 결론짓는다.

두 강이 합쳐졌으니 물살이 거셀 것은 뻔한 이치고, 물살이 거세면 양 언덕이 가파를 것도 당연한 일이다. 물살이 거세면 물안개가 일 것이 틀림없다. 그러기에 다음 구에서 언덕을 이야기했고, 그 언덕에는 짙은 구름으로 가려 있음을 아름다워 보았다. 왜 하필 붉은 언덕(紫雲)일까, 저녁 햇살에 반사된 빛, 또는 계절적으로 가을의 단풍이라 말할 수도 있었지만, 김

불심의 이 붉음(紫)은 신선의 경지로 많이 응용되는 용어이다. 자운(紫雲)은 상서로운 구름을 나타내고, 자전(紫泉)은 신선이 마시는 우물이고, 자궁(紫宮) 자각(紫閣) 자정(紫庭) 등은 황제의 거처를 말하면서 동시에 신선의 처소를 이르기에도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표현들은 명승지에 걸맞은 용어라 할 수 있다. 거기에 대응되는 회나무의 서늘한 바람이 더욱이 정자의 그윽한 풍경을 더해 준다.

시선을 다시 저 강 아래로 돌리면 낚시대를 드리운 어부의 한가로움과 해저의 갈무리를 하기 위하여 소를 모는 목동의 피리 소리가 어울려 강 마을의 저녁풍경을 더해주고 있다. 이런 경치를 소홀히 지나칠 수가 없으니, 석장을 날려 백사장을 거닐어 보는 것이다. 지는 해 등에 지고 한가로운 거니는 한 스님의 요절한 뒷 모습을 보는 듯한 한 폭의 그림이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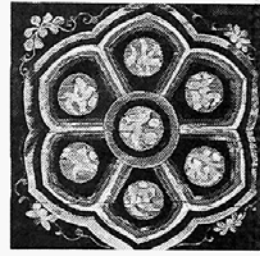
통도사 대웅전 단청 모사전

11월9일까지...기동·공포·천장등 44점

현존하는 우리나라 단청종 최상의 것중 하나로 꼽히는 국보 제290호 통도사 대웅전 단청문양을 모사한 모사특별전이 11월 9일까지 통도사 만세루와 경내에서 열리고 있다.

통도사대웅전의 기둥, 가구, 공포, 지붕, 천장 등의 단청을 그대로 모사한 이번 전시회에서는 그동안 실내의 어두운 조명에 가려져 잘 볼 수 없었던 단청의 섬세하면서도 우아한 조화미를 그대로 보여주는 모사작품 44점을 감상할 수 있다.

이번 대웅전 단청의 모사는 김창균(문화재전문위원) 마성우(한국불교미술협회원) 박근형(문화



▷ 통도사 대웅전 천장의 '연화대나무문양' 모사. 재수리기술자) 김지연(동국대불교미술문화재연구소 연구원)씨 등 14명의 작가가 담당했다. (0523)82-1001

하! 수상한 시절, 미륵세상이 오긴 오려나

대통령은 미륵보고 웃고 미륵은 대통령보고 웃고

전국서점 베스트셀러 예고

미륵

헤엄스님 장편소설

문득 고개들이 아늑하면 이!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미륵세상

《소설 미륵》은 영평동굴(熊老洞)과도 깊은 억겁의 사랑을 키워온 인연의 미륵을 꿈꾸는 젊은 구도자의 절박한 수행역정을 통해 사랑만이 사랑을 움직이게 한다는 불의 진리를 깨닫게 한다. 깊은 은둔 중생들의 눈길 귀가 되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속에서 비로써 희망이라는 미륵이었다.

모든 인간에게서 미륵을 본다. 세상이 바뀌기를 희망하는 모두의 가슴에 미륵하나 묻어두고 산다. 미륵의 월급쟁이, 미륵의 농부, 미륵의 구도자, 미륵의 대통령... 세상의 온갖 매를 달아내 담겨있는 절레같은 사람들의 세상이 색은 물론 달아내 걸러내는 절레같은 사람들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미륵같은 사람들 아! 그러워라. 꿈과 일과 밥이 하나되는 세상이어. 길을 가다 문득 울려다 본 하늘이 눈부시다. 살았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미륵세상이 오긴 오려나.

“나는 이 땅의 승려로서 새시대를 기다리는 중생들을 위해 진정으로 민족의 번영과 희망을 얻어줄 미륵대통령이 나타나서 세 역사를 경영해줄 것을 염원합니다.”

국문(원정판)/138쪽/값 5,500원

서울시 서초구 영재2동 320번지 경원B/D 2F TEL5290140~5 FAX5792312

공병이의 꿈 매미의 노래

부록: 신선이 되는 길

모든 애벌레 몸속에 한마리의 매미가 살고 있듯 모든 사람들 가슴에도 자유의 매미가 살고 있다

아절 없는 공병이가 갖은 고난을 겪고 탐바꿈하여 아름다운 소리를내는 매미가 되고 이어 본래의 지리인 대생명(大生命)으로 돌아가는 이야기

‘인생교사’로서 적은 미물인 매미가 우리에게 제철화된 조금씩과 이기심을 털어버리고 ‘기다림’과 ‘배려’는 살의 미학을 깨닫게 한다.

사람이 심기신(心氣身)수련으로 탐바꿈하여 신선이 되는 길입니다. ‘신선이 되는 길’을 부록으로 실었다.

글과 조화를 이룬 삽화가 책의 모미를 더해준다.

● 책을 주제로 공병이와 매미의 비유를 통해 초월자의 모습을 그려낸 동화소설로 자연에 묻혀 명상의 시간을 제공한다. -동아일보-

● 공병이가 매미로 탐바꿈하는 과정을 우화로 꾸며 대생명의 순환법칙을 깨닫게 한다. -한겨레신문-

● 이 책은 키오스로 차달는 이 시대 우리 모두를 위한 인생독본이다. -서울신문-

글/ 고준현(경기도 철학과 교수), (서초구 포정 洞) 대표
그림/ 최수경(전주대 철학과 교수)

서울시 서초구 영재2동 320번지 경원B/D 2F TEL5290140~5 FAX5792312